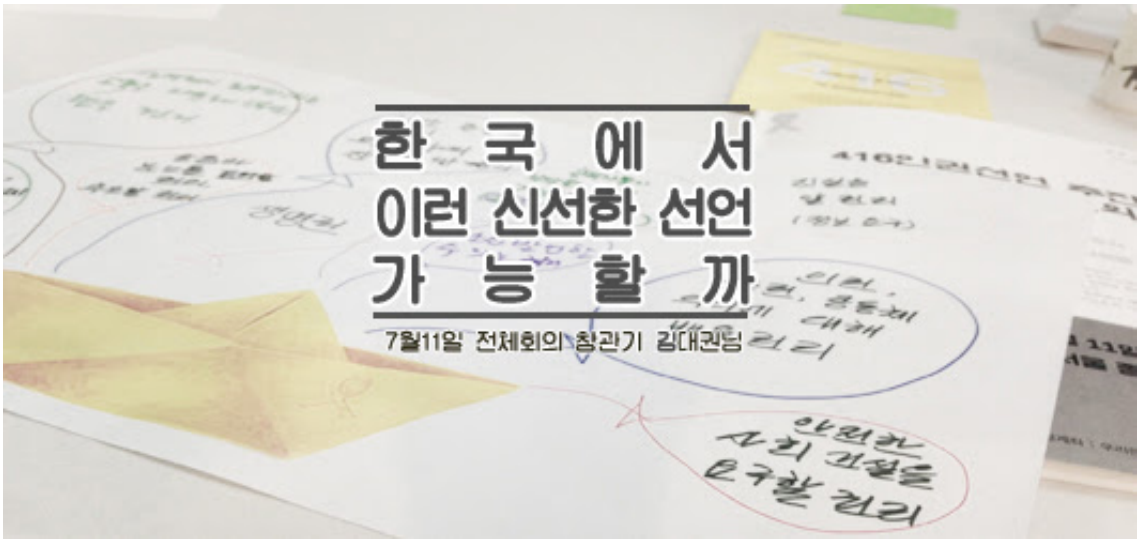
메인배너

인권선언 웹진 4호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04, 2015**

풀뿌리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풀뿌리토론]한국에서 이런 신선한 선언 가능할까



416인권선언 추진단이 전국에서 모여 전체 회의(7월 11일)를 연다고 했다.
전체회의 참여 신청은 해놓았지만 막상 참여하기 직전까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갈까 말까, 지역에서 서명캠페인도 있는데,
뭔가 추상적인 이야기만 듣다 오는 건 아닐까 등등....

[후기]서대문 풀뿌리토론

서대문 풀뿌리토론 후기

“서대문416네트워크”는 서대문 주민들의 카톡방 모임이다.
처음엔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함께울라)였는데,
꾸준히 번개모임으로 오프모임을 진행하고,
공동실천을 쌓아가면서 정체성을 뚜렷이 하자고 의견을 모아
모임명을 “서대문416네트워크”로 바꾸게 되었다.

[후기]대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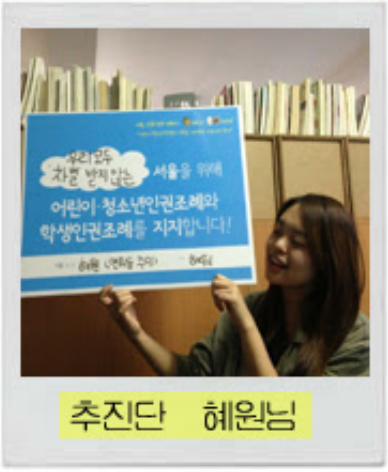
대구 간담회 후기

다들 멈칫했다.
‘인권’과 ‘선언’이라는 말에 모두.
세월호 참사로 짓밟힌 ‘인권’에는 모두 고개 끄덕이지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모순 덩어리 참사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인권’과 ‘선언’이라는 말의 효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갸우뚱해 했다.

인권선언을 함께 하는 추진단이 궁금해!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릴레이 인터뷰] 추진단 김연지님

"인권선언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 사회운동이 된거죠"



[릴레이 인터뷰] 추진단 혜원님

"세월호 참사 이후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착한 어른의 복원이 아니라 보다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에요"

조금 더 토론하고싶다면: 읽을거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4.16 인권선언 운동 7월 한달 활동 경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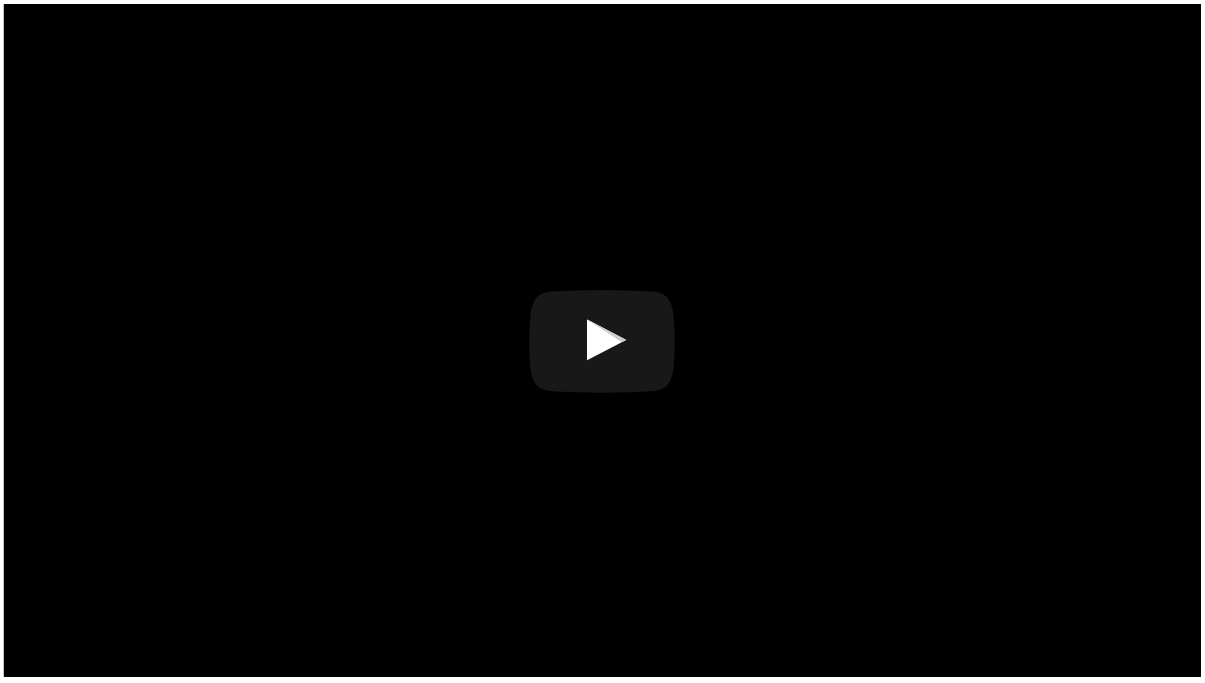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우리동네 풀뿌리 토론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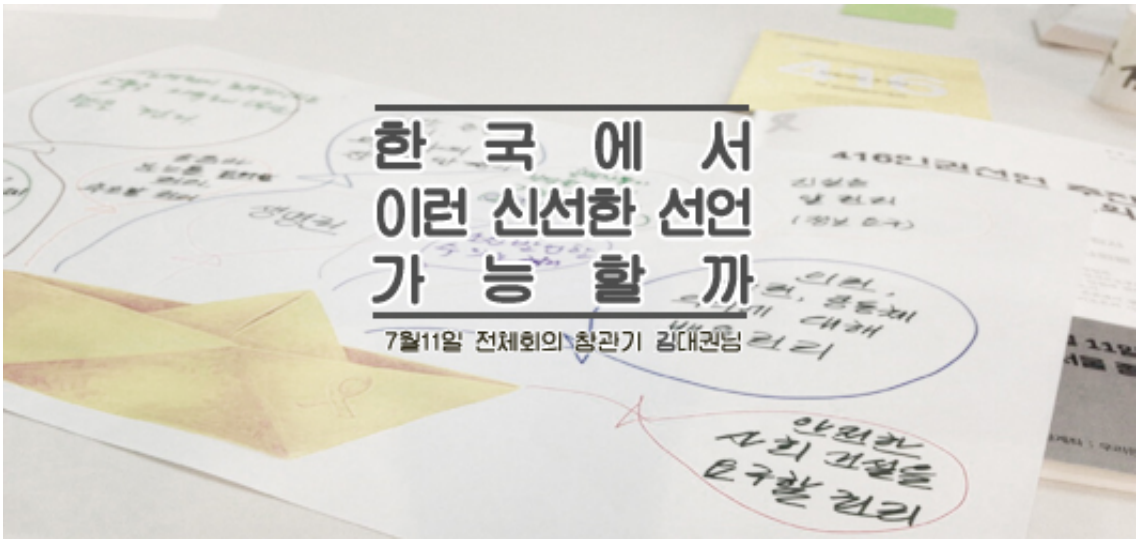
[홍보영상]4.16인권선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TAG • #웹진

[웹진 4호] 4.16 인권선언 추진단 7.11 전체회의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한국에서 이런 신선한 선언, 가능할까

416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 참관기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416인권선언 추진단이 전국에서 모여 전체 회의(7월 11일)를 연다고 했다. 전체회의 참여 신청은 해놓았지만 막상 참여하기 직전까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갈까 말까, 지역에서 서명캠페인도 있는데, 뭔가 추상적인 이야기만 듣다 오는 건 아닐까 등등.

더구나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 자연히 가기 싫다는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다. 모두 열띠게 토론하는 와중에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난감한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내 머리는 이런저런 가기 싫은 이유를 떠올리고 있었는데도, 내 몸은 벌써 버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내 머리를 채웠던 질문들은 전체회의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결되었다. 우선 모둠 토론을 하면서 모두가 비슷한 생각들이었다는 점을 느꼈다. 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광화문에 나오고 거리 서명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월호를 조금씩 잊고, 심지어 '넌 아직도?'라는 말까지 들으며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세월호 이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했지만 뭔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다. 우리는 모두 세월호 이후 우리의 삶과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나는 그것이 답답했다. 광화문 집회와 거리 캠페인 등의 활동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월호 이후 달라져야 할 우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새로운 사회 만드는 운동으로서의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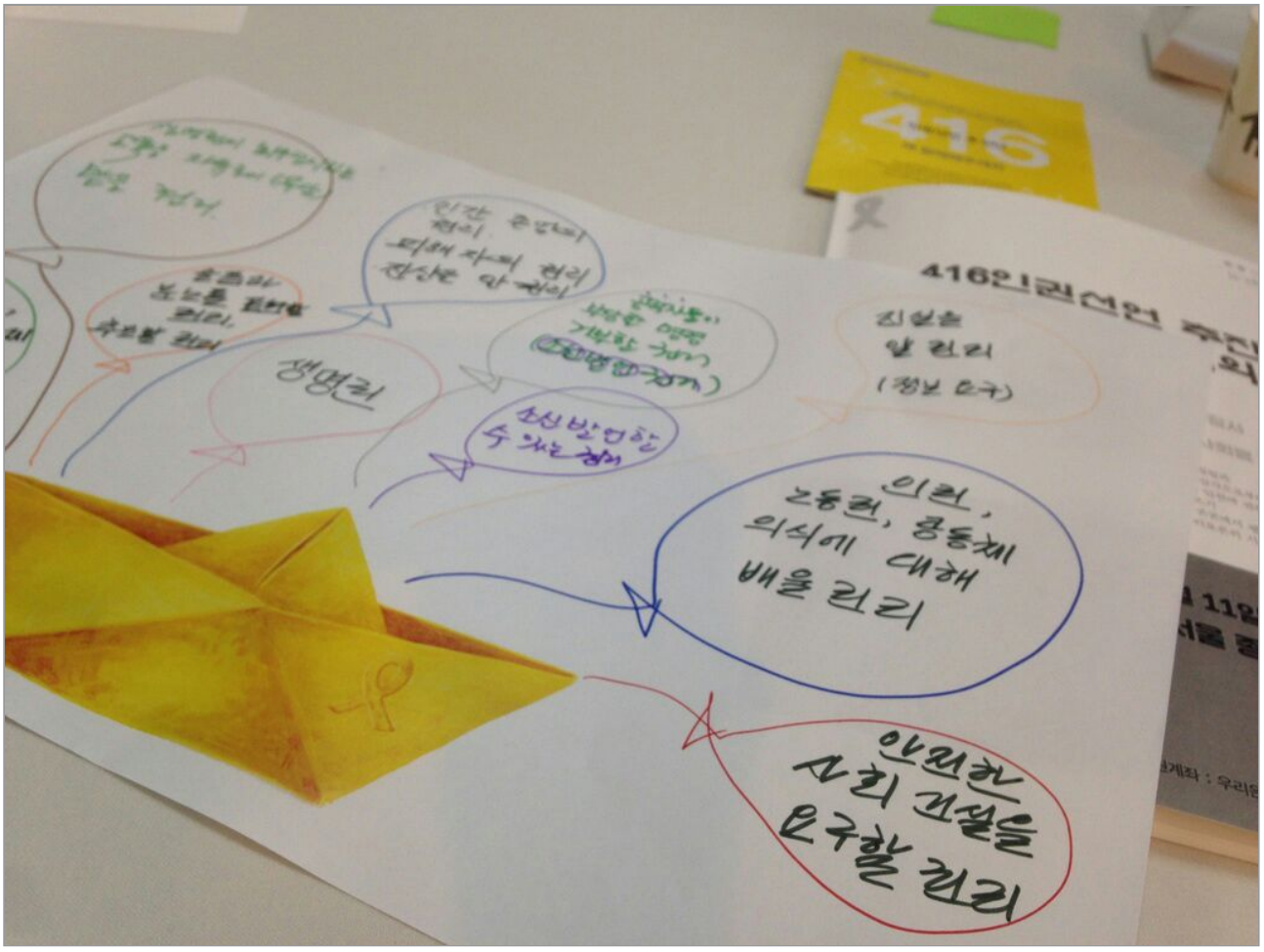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나와 우리의 바람이 '인권선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이 '선언'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16 인권선언 운동이 추진단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선언으로 그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선언문 하나를 남기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인권헌장사태의 안 좋은 기억도 이런 의문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한몫하였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에 참여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권선언'을 풀뿌리에서부터 조직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어떤 학자나 명망가 중심의 선언문과는 분명 달랐다. 이날 전체회의를 준비한 분들도 이 점을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 그래서 4.16인권선언은 '선언을 위한 선언'이기보다는 '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선언'이다.

물론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낯선 방식이다. 나 역시 볼리비아 민중들이 차베스 헌법을 읽고 토론하면서 투쟁을 조직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으나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느끼기에 한국은 민주화 투쟁의 집단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나 웬일인지 토론문화는 그리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에게 4.16인권선언운동은 매우 신선하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도였다.

이윤보다 생명 위한 변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추진단장 중 한 명인 광주 활동가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5.18 광주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30년이 지나도 고립된 5.18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혹한 역사였는데, 세월호 참사조차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우리는 더 큰 바다로 향해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자들은 반면에 세월호 운동을 고립시키려고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세월호 투쟁이 세월호의 아픔뿐만 아니라, 생명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희생되어 가는 모든 이들의 아픔까지 껴안을 수 있는 운동이 된다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 304명의 고귀한 생명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고양지역에서부터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을 조직해봐야겠다.

[웹진 4호] 서대문네트워크 풀뿌리 토론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서대문네트워크 풀뿌리 토론 후기

4.16 서대문네트워크 양승미

"서대문416네트워크"는 서대문 주민들의 카톡방 모임이다. 처음엔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함께울라)였는데, 꾸준히 번개모임으로 오프모임을 진행하고, 공동실천을 쌓아가면서 정체성을 뚜렷이 하자고 의견을 모아 모임명을 "서대문416네트워크"로 바꾸게 되었다.

어느날, 숭이가 제안한 416연대의 <인권선언풀뿌리토론회>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막연하고 답답함이 없지 않았다. 매일 수두룩 빽빽히 카톡방에 올라오는 클릭하기 두려워진 뉴스링크들, 특조위 현황, 국정원 사태의 황당무계함 같은 한숨뿐인 일상속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을 길어올려야 하는 "인/권/토/론/회"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된다는 걸까? 오늘도 어디선가는 현장의 긴박함과 절실함을 호소하는데 왠지 한가롭게 보이는 이 인권선언이 당장의 세월호 현안을 어떻게 담보한다는 거지? 또 한편으론 매일 거리로 뛰쳐나갈 수도 없는 현실의 버거움 속에서는, 지역에서 일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으로써 뭔가 새롭고 해볼만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세월호 실천을 제안하면 웬만하면 하는지라)

"서대문416네트워크"는 오프모임때 적으면 3-4명 많게는 10여명이 번갈아가며 꾸준히 모여서 누군가가 제기한 실천과 제안들에 대해 실행을 논의하고 협의해 나간다. 이번에는 <풀뿌리 토론회>였고, 우리는 서로서로 카톡으로 의논하며 웹포스터를 만들고 준비를 해나갔다. 인권운동활동가 미류샘과 함께한 사전간담회는 전체토론회를 준비하는 촉진자들에게 이 토론회가 가져올 우리들의 내적 힘을 미리 발견하게 해주었다.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말하는 세월호 이야기들"은... 모두에게 진짜인 그 이야기들은...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자꾸자꾸 퍼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

20여명 넘게 모인 전체 토론회! 촉진자들에게는 두 번째 토론이었지만 다시 이야기할수록 각자의 이야기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 안에서 힘을 얻는 에너지였고, 위로였고, 서로의 슬픔과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과정이였다. 논쟁과 주장 또는 평가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진심을 공유하고 들어주며 고개 끄덕여 주는 그 과정은 그 자체로 '내가 사람이구나. 우리는 모두 온전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 보듬어 주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우리도 이런데,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 마음을 어찌하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임을 확인하는 과정. 모두가 함께 사람임을 인정받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서로의 가슴 속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더 한층 깊게 깨달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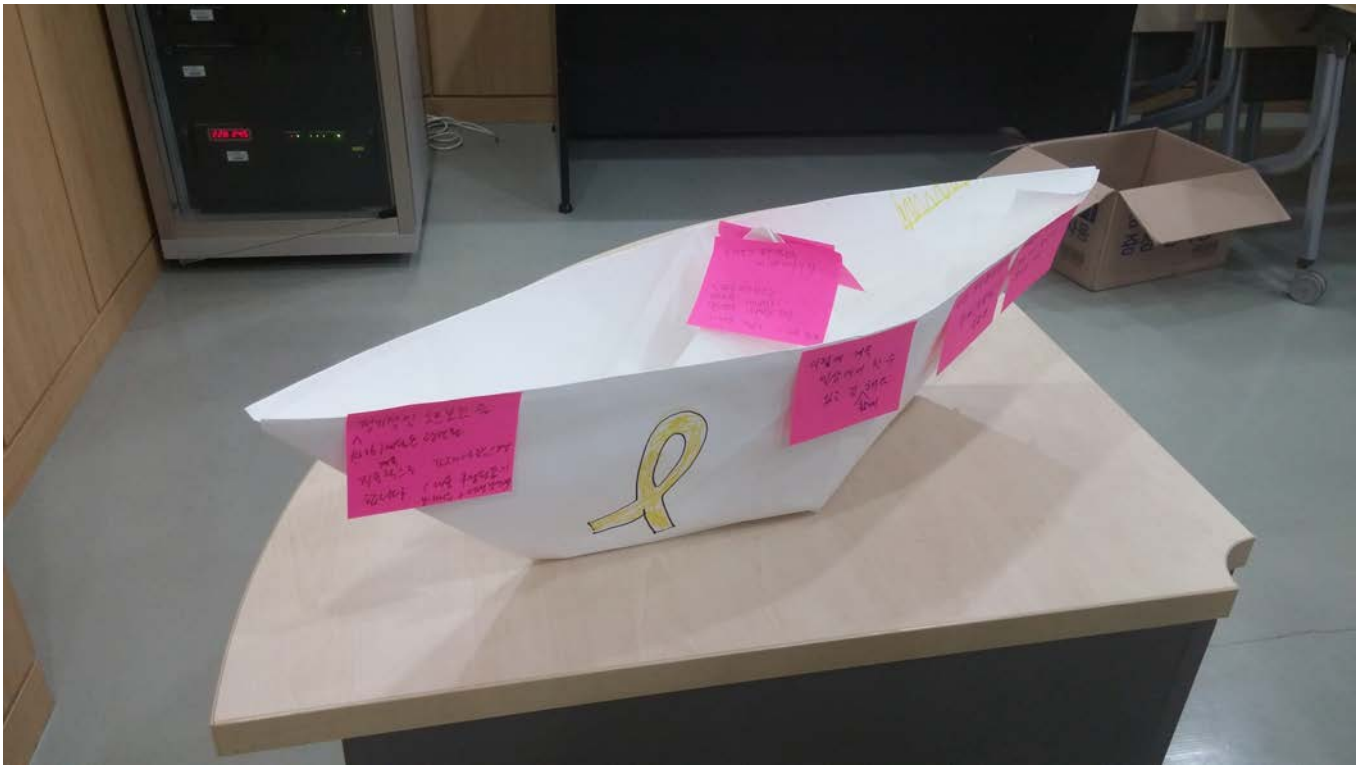
토론회 시작전에, 416 연대의 도움으로 현장으로부터의 권리선언 방식이 가져올 의미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나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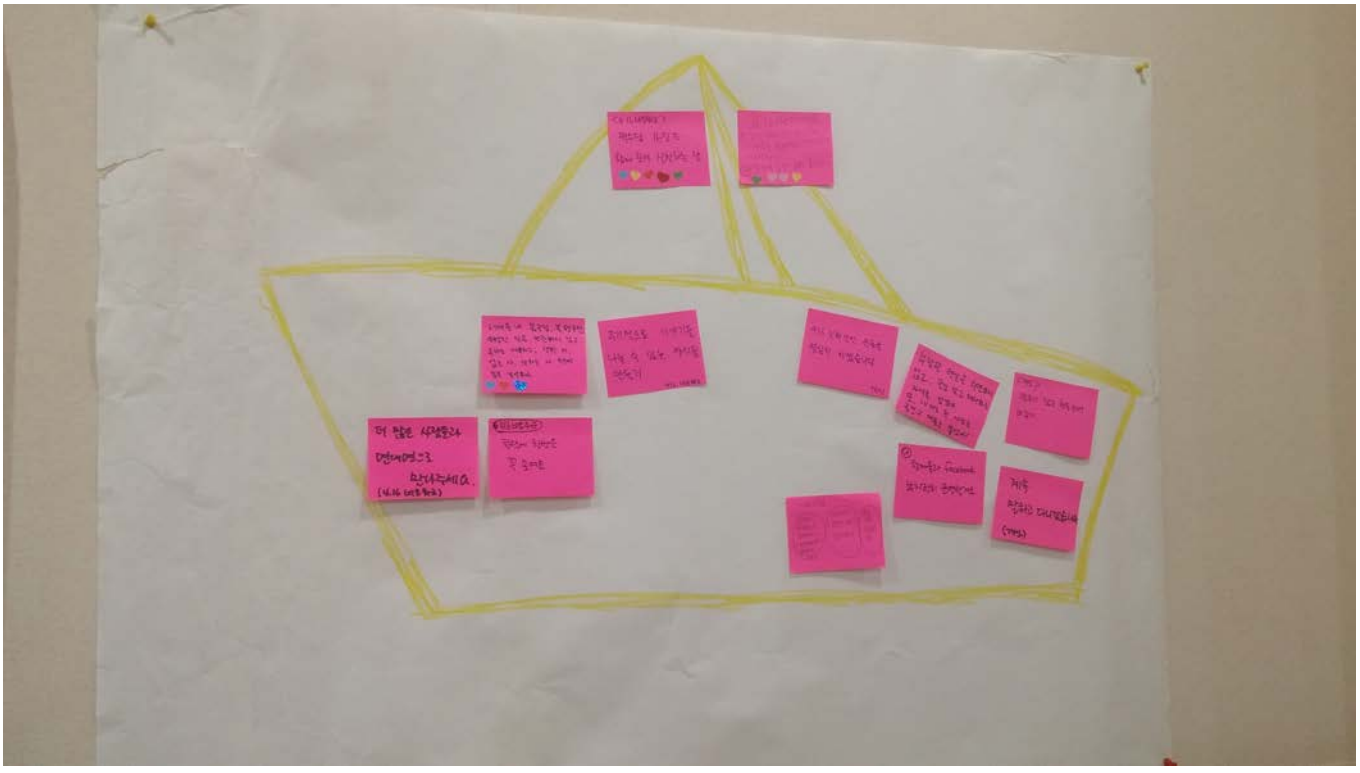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국가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쉽게,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은 계급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 청소년, 어린이, 노인,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 이미 우리 사회 시스템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육이 학교현장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일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 무섭고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아프게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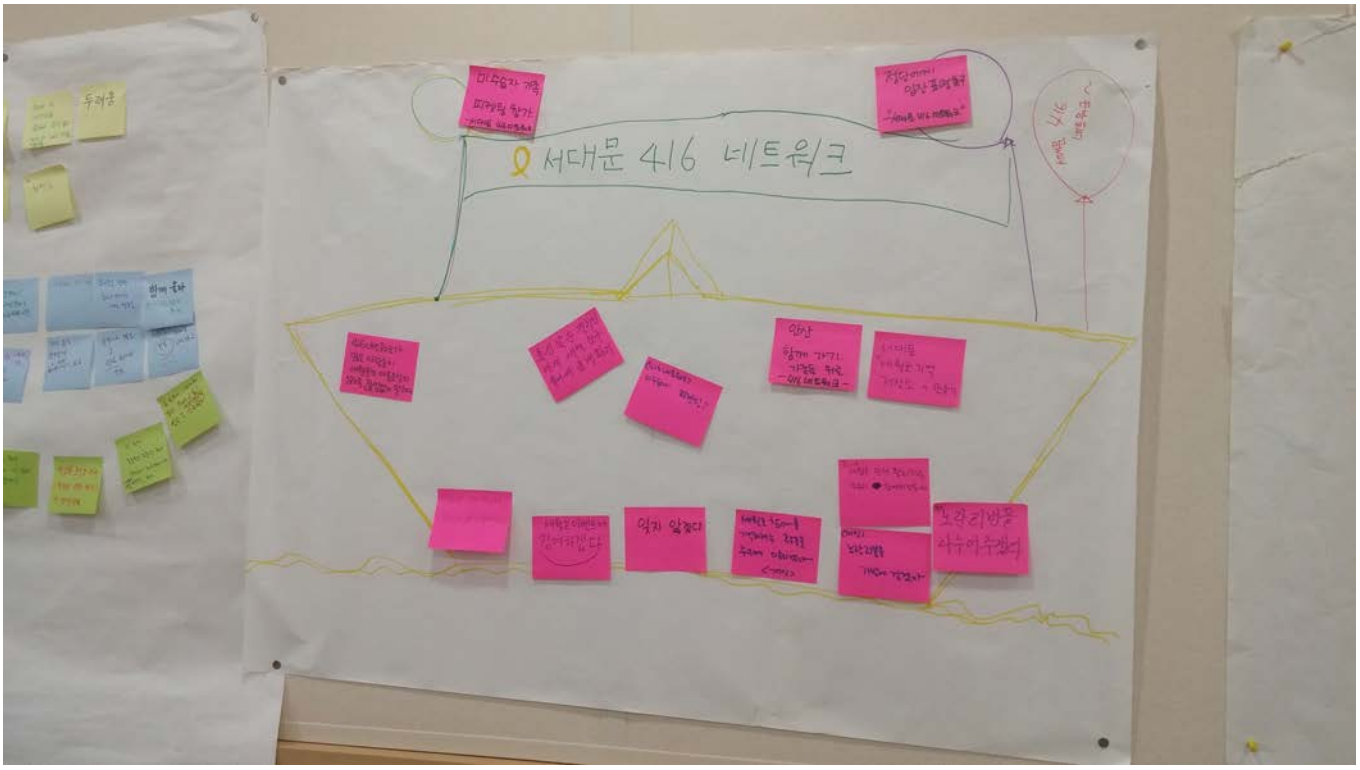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우리는 인권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416네트워크”가 해야할 실천을 모아보았다. 토론회에서 직접 우리 입으로, 말로 인권선언을 만들어 보았고, 조금 더 나아가 지금 현재 가장 아프고 어려운 현장에 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몫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모두에게 주어진 실천과 결심카드는 버려지는 포스트잇이 아니라 지갑속에 잘 벼려 두는 다짐카드가 되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개인의 다짐과 약속~! 미수습자 가족 곁에 서겠다는 릴레이 피켓팅 실천까지…

현장의 실천도 잃지 말자고 약속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도 시작되었고, 한명이 됐든 열명이 됐든 모두가 진짜인 자기 자신의 세월호 이야기가… ‘임금님 귀 당나귀 귀’로 울려퍼지기를 바래본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8월 첫주부터 “서대문416네트워크”는 미수습자 가족 피켓팅에 동참합니다.
긴 호흡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회 잘 해봐요!







TAG • #웹진, #풀뿌리토론, # 후기

[웹진 4호] 인권선언 대구 간담회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대구 간담회”에 다녀와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서지회 강성규

다들 멈칫했다. ‘인권’과 ‘선언’이라는 말에 모두. 세월호 참사로 짓밟힌 ‘인권’에는 모두 고개 끄덕이지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모순 덩어리 참사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인권’과 ‘선언’이라는 말의 효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갸우뚱해 했다. 지난한 세월호 인양과 진실 규명이 일단락되어 지난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거리가 비로소 확보되었을 때 ‘세월호 인권 선언’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지금은 동네에서 거리에서 서명 받고, 세월호의 고통에 공감하여, 또 무도한 정부의 악랄한 훼방에 맞서 투쟁할 때라고 대구의 세월호 활동가들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 선언을 제안한 활동가들의 반론 또한 깊었다. 이 길고 긴 싸움을 무슨 힘으로 할 거냐고. 투쟁의 동력은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투쟁의 전선을 접고 교양 있는 ‘인권’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자아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풀뿌리에서부터 마련해 가자는 것이었다. 세월호를 기억에서 지우고 가려는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인권이라고도 보았고, 창현 어머니는 이 모든 제안과 반론을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듯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뭐든 잡아야겠다고.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직접적, 문화적, 구조적인 폭력과 무책임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안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잡아야겠다고. 여럿이 모여 소리를 치고 서명하고 도보행진하고 노숙하고 노래하고 주먹을 드는 전선의 힘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만남과 토론, 서로서로 상기시키는 것, 각성시키는 것, 현실에 안주하고 지치는 마음을 다잡는 어떤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에너지를 모으는 그릇의 이름이 인권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동시다발로 수백 명과, 수백의 가정과, 직간접적으로 엮인 많은 사람의 고통을 이간질하고 있는 정부의 악랄함 앞에 서로서로 자기 안으로 웅크리지 않게, 더 마음을 펴게 하는 그릇으로서 ‘인권’이 호명된 것이다. 다만, 그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과정은 바로 지금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전파하면서 긴급한 상황부터 강조하고 절대로 관련된 모든 고통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일 게다. 인권이라는 큰 그릇 안에 칸을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인 생명권, 시신을 수습할 권리, 모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받을 권

리, 언론의 왜곡에 구제될 권리 등등 수많은 각론의 권리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궁극에는 진실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충족될 때까지 그 모든 인권에 대한 실질적 내용들은 시냇물이 될 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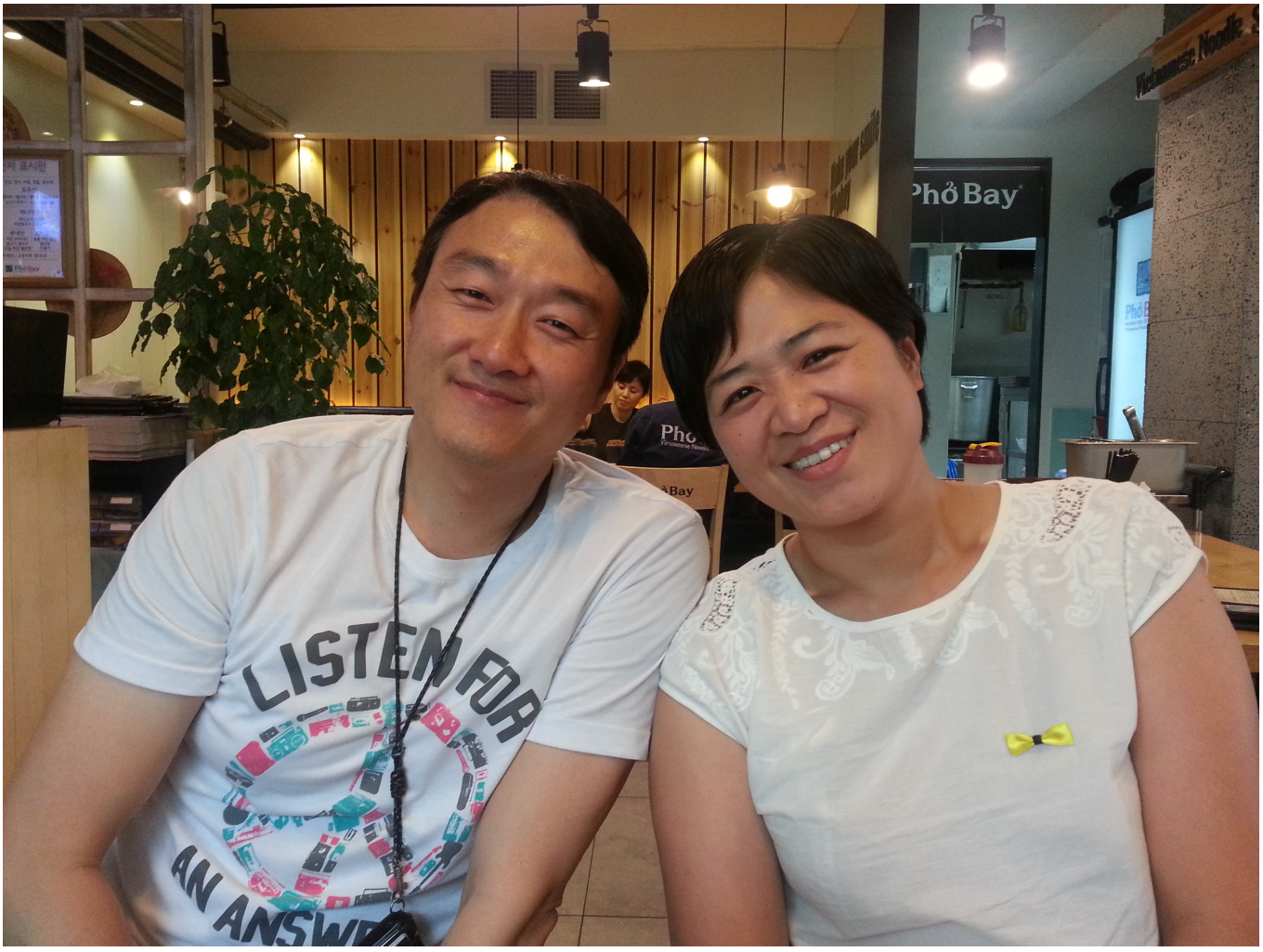
활동의 피로감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말수가 줄어들게 한다. 일상의 시간은 세월호를 잊고 살자 한다. 가방에 '세월호참사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한 권을 넣었는데 등짝이 뜨겁고 가방이 무겁다. 방학 첫 날부터 새 학기 수업 구상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1학기 인터뷰에서 나에게 물었다. 세월호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리본을 나누고 수업하다가 어떻게든 세월호로 빠지는 선생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너희들 같아서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날 가라앉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고.

인권이라는 말 자체는 공허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의 맥락. 그 말을 둘러싸고 세월호의 현재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다시금 세월호를 현재화할 수 있었다. 다시 신발끈 매고, 아직 언론에 세상의 관행에 덜 오염된 학생들과 나눌 2학기 세월호 수업을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정신없이 하다 돌아보면 그것이 사랑이었듯, 세월호 이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인권이라는 그릇에 담길 것이고, 그 그릇은 어디에서든 서로 다른 감성의 사람들에게 대화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초보적인 감수성을 이미 상실한 이 나라 입법, 사법, 행정 최정상의 권력집단을 제외하고는. 무엇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는 다시금 왜 이 길을 가는지 서로 이유를 묻는 뽐뿌질이 필요했던 것이다.

TAG • #웹진, #간담회, #후기

[웹진 4호] 추진단 인터뷰 11. 인권선언 추진단장 엄마의 노란손수건 연지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1. 세월호 투쟁에는 어떻게 함께하시게 됐나요?

세월호 전에는 한번도 사회 문제에 나선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사회 문제 얘기하면 시끄럽다고 막 그랬었죠. 전 정말 가화만사성, 우리 집만 잘 굴러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운동권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 내 생에 최초의 집회가 아이와 함께 갔던 세월호 집회였어요.

세월호 참사 처음 벌어졌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명 받는 것도 알긴 아는데 시간이 안 났어요. 동네에서 서명용지 출력해서 사람들에게 서명 좀 해달라고 돌아다닌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집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노란리본 악세사리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가족 분들도 보면 좋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는 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직접 와서 주라고 해서 처음 유가족들을 뵙게 됐고,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거죠. 엄마손에는 한겨레 기사를 보고 가입하게 됐어요. 엄마손은 카페에는 만 명 넘게 가입되어 있어요. 대표님들은 정말 평범한 엄마들이고,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지역이 되게 다양해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바쁜데 시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든 하고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서 나온 엄마들이죠. 제가 제일 어린 축이고 대부분 중고등학생 어머님들이에요. 최근에는 카페 관리하시던 분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카페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2. 4.16 관련 활동하면서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때요?

우리 엄마는 돈 벌 궁리나 하라고 해요. 언니같은 경우는 동생이 이런 걸 한다는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누군가 해야되는 일이지만 왜 하필 너냐고. 근데 또 언니가 다른 엄마들이랑도 얘기를 했었나봐요. 누군가는 해야되는 일이라고. 남편은 되게 잘 도와줘요. 집 때문에 몰래몰래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 들어오기 전에 집에 가야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전 바쁘다고 집안 일도 내팽겨치고, 돌아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에 사고 나고 제가 매일 울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가 제가 매일 나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근데 남편이 그때 언니한테 말한 게 기억에 남아요. 내 생각을 많이 읽어주는구나 싶었던 게 얘가 이러지 않으면 못 산다고, 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거라고. 사실 저도 늘 열심히 할 수만은 없잖아요. 꾀도 생기고. 가끔 나 가지 말까, 하면 남편이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면 갈까, 싶어지는거죠.

3. 인권선언은 어떻게 함께하시게 됐어요?

4.16 연대 관련한 회의에 갔다가 인권선언 활동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던 때였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회의 두번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웃음) 안산 언니들에게 내가 힘든데 할 수 있겠냐고 하니 회의 두번만 나가면 된다는데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거라는 걸 알게 된거고.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세월호 참사가 슬퍼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되니까 특별법 제정된 후에는 힘이 빠지더라구요. 멈출 수는 없으니까 약속지킴이 등 받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인권선언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 사회운동이 된거죠. 감정적인 운동에서 세월호 참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사회운동으로. 참사 이후의 사회가 변해야 하고, 이대로 두면 사회가 더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거죠.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인권선언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사회 문제의 집합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추진단 함께하면서 이것저것 강좌도 듣고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거에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래서 문제구나.

4. 인권선언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권선언이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과 어떻게 맞물려갈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아요. 따로 놓여진 것 같다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구요. 풀뿌

리토론을 고민하면서도 엄마손 언니들은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세월호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으로 토론해볼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체회의 할 때 어떤 분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건 아니다 느꼈던 거 말하는 시간에 '집회 공연'을 쓰셨더라구요. 왜 싸우러 와서 공연 보고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보면 분열 될 것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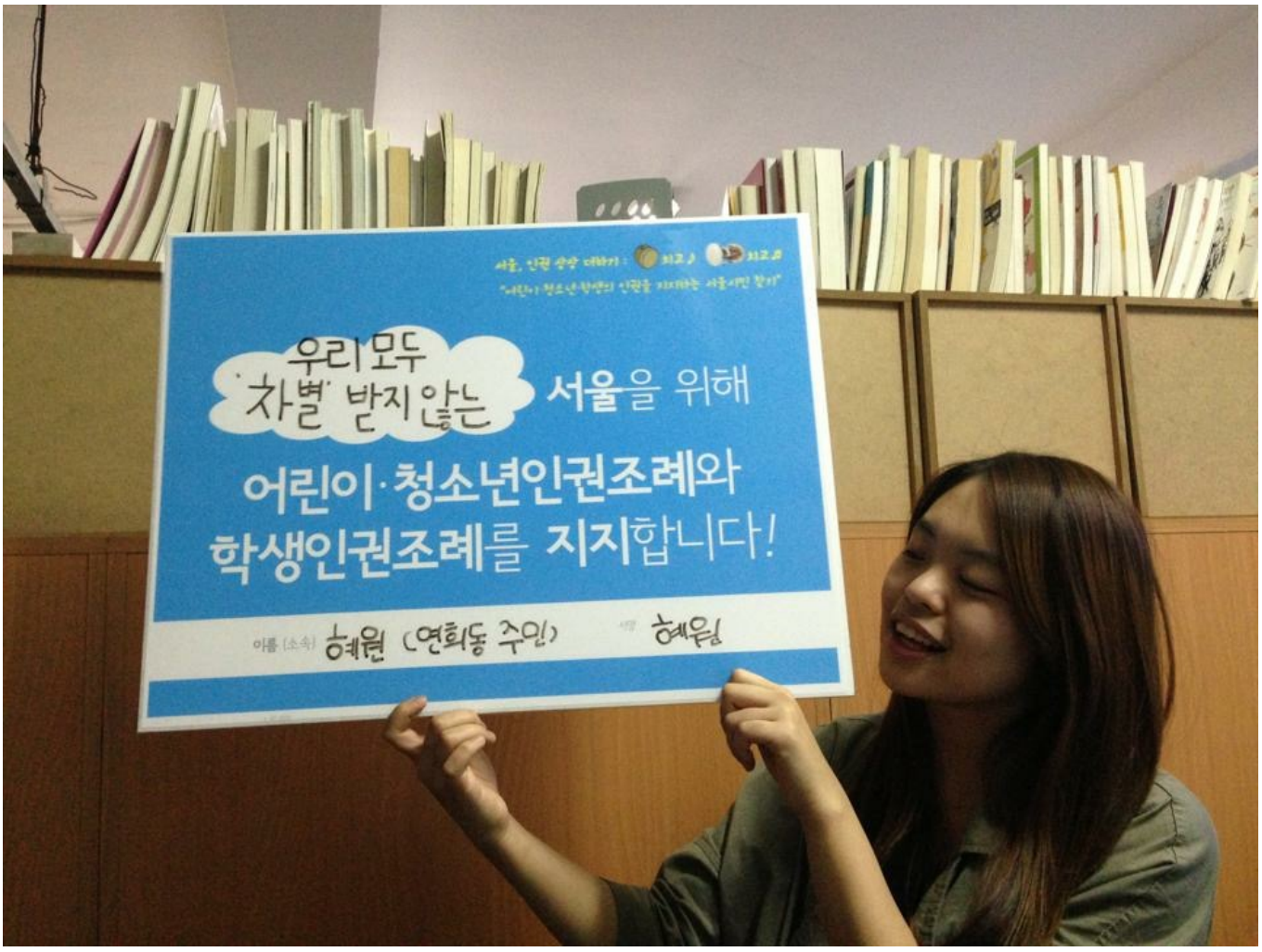
5. 마지막으로, 인권선언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추진단장은 저도 이전에는 인권이 저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파고드니 정말 인권이란 것이 저희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기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법에서조차 저희를 지켜줄수 없는 범주에서조차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의미이구나 하는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권과 스스로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인권을 찾기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기를 내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수락하게 되었어요. 좀 더 많은분들이 스스로의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는 만큼 권리를 찾게 행동하셨음 해요. 저도 정말 평범한, 아니 그보다는 더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것이 더 의미있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4호] 추진단 인터뷰 10.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혜원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1.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저그런 시간을 보내다 일제고사를 계기로 청소년 운동을 만났고 지금까지 쭈욱 해오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활기'는 다양한 청소년,교육 단체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에요. 한 줌 밖에 안되는 청소년 운동이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래오래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활동의 재정적, 담론적 기반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참사 이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TV에서 처음 참사 소식을 듣고 접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후 구조 과정에서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절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장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에 정말로 가만히 기다리던 단원고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함도 분명 큰 문제에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학교와 교육이 '왜?'라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같은 지시를 의심해볼 수 있는 힘과 거절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그 슬픔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하려 애쓰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노란리본을 다는 것 조차 어려웠어요. 집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구요. 학교에서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노란리본 달기를 막았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온전한 추모의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토록 큰 비극을 겪었음에도 또 다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가시질 않아요.

3.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그동안 이 사회에서 청소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는지 확연히 드러났던 것 같기도 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하다'라는 구호들도 많이 보였고요. 지난 4월에 진행되었던 1차 추진단 원탁회의에서 창현엄마 최순화님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수학여행 진행과정에도 아이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세월호참사와 청소년의 권리,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역시 청소년 운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무능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가 과연 따를 만한 지시였는지 의심해 볼 수 있는 힘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지 못한 교육이 불러온 재앙 앞에 이제는 뼈 아프게 성찰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어요. 무조건 순응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학생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미덕인 것 마냥 여기는 관점과 태도들도 사라져야 하고요.

참사 이후 전개된 운동의 방식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을 호명하는 방식이 '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과 같은 말에 갇혀있을 때 청소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미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은 청소년들의 삶과 주체성에 대한 훼손이기도 해요. 또 반대로, 학생 희생자의 죽음이 참사의 비극성을 극대화 시키는 장치로 고정 되어버린 상황은 그 죽음의 무게를 격하시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잖아요. 세월호 참사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구조적 부조리들이 축척된 결과였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착한 어른의 복원이 아니라 보다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에요. 착한 어른이 지켜줄때만 가능한 권리와 존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되물어야 해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에요. 내일의 주역이 아닌, 오늘 날을,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대접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착한 어른'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싸울 수 있는 동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이 회복되고, 더 많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도 주어져야 하겠지요.

4.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 '나는 뭘 해야할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었지만, 참사가 불러온 압도적인 비극 앞에 두 발이 꽁꽁 묶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참사 이후의 장면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진실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분들과 활동가들이 잡혀가고, 추모집회 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진 것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학교와 교육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잊지않겠다'고 다짐 했지만 참사 1년이 지나고 정말로 내가 이 비극을 잊지 않았는지, 혹여나 일상의 번잡함에 마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싶기도 했어요. 무엇을 어찌 해야할지 여전히 참 막막하지만 그래도 둘러앉아 지혜를 모으고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울 힘 같은거. 그런 힘과 용기를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선언하는데 또 저의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 같아요.

5. 416인권선언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인권선언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4.16 인권선언은 어떤 절박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감정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를 살아내 왔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바램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단 한자락도 밝혀진게 없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애정이 사라진 자리에 모욕과 혐오가 움트기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나와 내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게 너무 무서워서 저에게 4.16인권선언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을 참아주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이기도 해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지혜들이 모여 선언에 잘 녹아들면 좋겠어요. 무너진 존엄을 회복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좋은 시작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선언이 보여주게 될 원칙과 가치들을 내가 발딛고 선 이 곳에서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6. 마지막으로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 전 '인사이드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슬픔이와 기쁨이, 버럭이와 까칠이, 그리고 소심이라는 가상의 감정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요. 흔히들 압도적이고 거대한 슬픔의 감정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냥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고 여기잖아요. 제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감정 역시 가늠이 되지 않는 크기의 슬픔과 절망감에 가까웠어요. 뭔가 너무 아프고 막막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꾸 움츠러들기만 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권선언을 준비하며 각자의 감정과 경험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 하면서도 공통된 슬픔을 느낄 수 있어 역설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충분히 슬프고 힘들었던 경험이고 감정이었지만, 그 슬픈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때로는 맹목적인 긍정보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쁨보다 슬픔

이 삶을 더 성장시키며 위로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인권선언 추진단과 풀뿌리 토론의 경험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차곡차곡 쌓아온 슬픔을 꺼내보이고, 서로 위로 하고 또 위로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나갈 원동력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4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9, 2015

★ 2015.7.1 실행팀 회의(11명, 천주교인권위)
- 7/11전체회의 참가명단 및 프로그램 진행 점검, 전체회의 이후 프로그램 및 진행 계획 세움

★ 2015.7.1 조직팀 회의 (7명, 천주교인권위)
- 7/11전체회의 실무 역할 분담 및 참가 현황 파악

★ 2015.7.2 서대문간담회 (10명 참석)
- 416인권선언운동 소개·제안 약식 풀뿌리토론, 제안 등

★ 2015. 7. 11 전체회의(200여명 참석, 수운회관)
- 추진단 등록 하지 않은 현장참가자가 70여명으로 파악되며 전체 200여명 참가
- 416인권선언운동 김연지/정혜숙/박래군의 3인3색 인권선언 제안
- 27개 모둠이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고, 3개 조가 나와 발표함
- 416인권선언 추진계획을 전하고, 공동추진단장이 위촉되어 결의를 나눔
- 다함께 추진단 결의문을 낭독하고 폐회함

★ 2015. 7. 15 세월호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정동프란치스코회관)
- 인권실태조사단이 5개월동안 준비한 인권실태조사보고서가 나와 보고대회를 가짐
- 피해자 증언 영상 및 인권침해 피해자별 권리 쟁점과 평가가 발표됨

★ 2015. 7. 16 인권선언 추진단 대구간담회(슈만&클라라, 15여명 참가)

- 대구에서 416인권선언을 제안하는 간담회를 가짐

★ 2015. 7. 17 조직팀 회의 (7명 참석, 4.16연대)
- 전체회의 풀뿌리토론 결과 및 소감 나눔을 보고 평가하는 시간 가짐
- 후속 활동 및 풀뿌리 토론 간담회 등 지원을 위한 계획 논의
- 홈페이지 및 웹진 개선안 논의

★ 2015. 7. 21 실행팀 회의 및 세미나 (17명 참석, 4.16연대)
- 지금까지 나온 풀뿌리토론 결과물을 취합해, 인권선언 성안문의 권리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발제하는 세미나를 가짐.
- 7/11 전체회의 평가와 함께 추진단 현황을 파아하고 이를 조직하는 방안 논의
- 온라인 공간 및 풀뿌리토론 지원 활성화 방안
- 풀뿌리토론 실행을 위한 인권강좌를 기획하기로 함.(자료집도 함께)
- 실행팀 체계 정비 논의

★ 2015. 7. 26 서대문 풀뿌리토론(20여명 참석, 홍은예술창작센터)
- 서대문 416네트워크에서 풀뿌리 토론회 가짐

★ 2015. 7. 28 조직팀 회의

TAG • #웹진, #활동일지

인권오름 주간인권신문

발행일: 2016-12-01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이종걸

트윗 좋아요 13

혐오가 말하는 사랑?

지난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시작을 축하하는 개막식이 열렸다. 축제 측은 개막행사를 메르스 여파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택했다. 개막행사와 관련한 관계자와 현장에서 개막식 참여를 원한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내 행사장 안에 있었고, 경찰은 행사장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같은 시간, 보수 개신교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며 조장하는 세력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을 둘러싸며 진행했다. 필자는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과 소수자 차별선동세력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현장에 있었다.

차별선동세력은 행사장 주변에 쳐진 경찰의 폴리스라인에 가까이 서서 라인 너머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축제 관계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역겨움을 표현하는 피켓들을 들어올렸다. '항문섹스도 인권이냐?, 정말 잘났어.', '메르스+에이즈 바이러스,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망한다.' 이들에겐 항문섹스로 대표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역겨움이라는 감정은 자신들이 세웠다고 믿는 국가의 세금이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결국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혐오로 작동한다.

이 역겨움이라는 감정의 시작은 그들에게는 낯선 타자(근데 정말 낯선 타자일까? 매년 이렇게 행사 때마다 마주하는데.)인 동성애자가 자신들이 주체의 공간인 국가 안에서,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 안에서, 그 공간에 동성애자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차별선동세력들은 그 역겨움을 통해 자신의 주체를 드러내고, 동성애자라는 대상을 타자화하면서 이 타자들이 주체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기 위해 혐오를 드러낸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선민(選民)'이라는 기표를 활용하여 선택받은 민족, 그 어떤 집단보다 우월하고 주체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며 그에 대한 경계에 있고 위협을 주는 존재를 혐오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차별선동세력과 선민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만나는가이다. 스스로를 선민이라 이름 붙이며 그 기표가 갖는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고 결집한다. 여기서 사랑이 등장한다. 그 선택받은 민족의 사랑은 타자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선민이라는 우월감에서 비롯한 자혜와 다름없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혐오하고, 이 혐오로 인해 우리는 모이고 존재한다'고 고백한다. 그 전략으로서 '동성애 전환치료', '탈동성애'라는 용어가 나오고, 급기야 6월9일 개막식에서는 '돌아와, 기다릴게……' 라는 피켓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로 돌아오라는 내용이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수 개신교가 베푸는 사랑은 일방적이고, 존재를 무시하며, 반인권적이다.

‘기다릴게, 돌아와……’를 ‘돌아와, 기다릴게……’로 변주한 차별선동세력

성소수자 차별선동세력들이 사용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실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여름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일베 회원들의 행동, ‘유가족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라며 엄마부대봉사단이 외쳤고, 올해 초에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천막을 직접 철거하겠다며 서북청년단이 나섰다.

지난 7월 15일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가 드러났고,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권리는 모조리 부정당했으며, 그날의 생존자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생존자, 생존자 가족, 피해자 가족과 현지 자원봉사자, 진도 어민 등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그렇지만 국가는 세월호 참사가 분명한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이 참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가로막으려 하면서, 급기야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극우 보수 세력들이 국가를 뒷배 삼아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지난 과정들은 자신들을 주체로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주목받고 싶은 인정투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타자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것에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이 참사를 통해 겪은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찰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안에서 혐오가 설 수 있을까? 국가가 은폐하고 있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인간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는 이 분노 앞에, 국가를 의지하고 살라고 말하는 이들의 언어가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다릴께, 돌아와……’라는 말을 자기 멋대로 돌려쓰는 이 차별선동세력이 말하는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시민,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5월부터 필자가 참여한 ‘인권연구소 창’의 ‘감정의 정치학’ 세미나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세미나에서 공부했던 자료들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덧붙임 이종걸 님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큰 발걸음
-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인권오름 제 449 호

주간인권신문

발행일: 2016-12-01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정진임

트윗 좋아요 0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당연한 일이다. 476명을 태우고 가던 배가 갑자기 침몰한 사고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당연히 구조될 거라 믿고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304명의 사람들이 사망자와 실종자가 되어버린 비통한 사실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 궁금함을 갖지 않는다면 외려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 배가 왜 침몰하게 되었냐고. 정부는 구조를 위해 무얼 했느냐고.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고. 왜 내 새끼가 죽어야 하느냐고. 그러나 대답을 하는 이는 없었다. 선박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세월호 소유주는 갑자기 백골이 되어 나타났고, 세월호 안에 탄 사람들의 구조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자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만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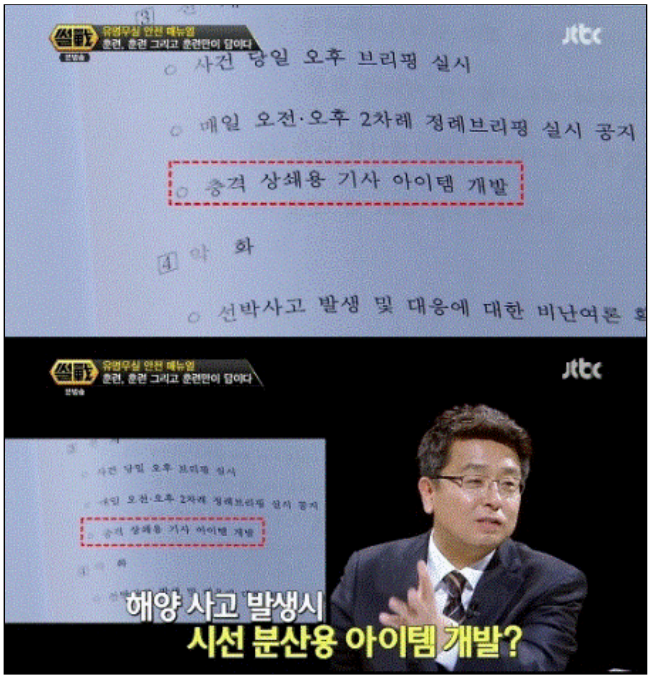
정보 은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사고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시간 가량 지난 뒤에 정부는 전원구조가 아니라 477명 중 368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내 구조자의 숫자는 180명으로, 다시 174명으로 줄었다.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정부는 실제 구조자 숫자를 172명으로 정정했다. 탑승자 역시 477명이 아니라 476명으로 정정되었다. 몇 명이 구조되었고, 몇 명이 아직 배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길 바라는 마음에 에어포켓에라도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소공급장치를 설치했다",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사고 발생 이후 많은 이들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에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보를 은폐하는 태도였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정보 자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세월호>라는 단어 대신 <SEWOL>이나 <세원호>같은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정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정보에의 접근조차 막기 위한 치졸한 조치들이다.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을 버젓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적어놓았던 해양수산부 역시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며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문제되는 내용을 매뉴얼에서 슬쩍 빼버리기도 했다.



정부기관들의 이런 정보 은폐 태도는 자료제출 거부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보를 주지 않으니 성역 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

정보가 없으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밖에 없었다. 세월호는 왜 갑자기 침몰했는지, 정부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4월 16일 사고 당일 도대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던 것인지. 정보가 없어 벌어진 틈들은 추측으로 채워졌다. 추측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정보를 밝혀 빈틈을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한 것은 감시와 통제였다. 정부는 사람들의 추측을 “괴담”, “유언비어”로 선언했다. 그리고 괴담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하겠다고 엄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진 <사건 발생 → 정부의 정보은폐 → 유언비어 확산 → 표현의 자유 통제>의 패턴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공포, 방사능 노출 공포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유언비어를 찾아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을 먹고 사는 유언비어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와 공론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알 권리의 실현이 중요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
늦장 부린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 위기대응 능력 부실, 사태 초반 정부의 정보 은폐, 유언비어 확산 등의 모습이 세월호 사건과 쏙 빼다 닮았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명을 공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병원명이 공개되면서 상당 부분의 유언비어는 해소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공포가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병원명의 공개로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기본권이다. 알 권리는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처리할 권리, 즉 ‘정보를 찾아서 보고·듣고·읽을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도 한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는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다. 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것을 공개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불신과 불안의 사회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다. 정보의 은폐는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덧붙임 정진임 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주간인권신문

발행일: 2016-12-01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명숙

트윗 좋아요 128

마음의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 인간의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 분명한 것은 소리는 단순히 감각적 차원이 아니며 무음일 때도 많고 가려지는 경우도 많기에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권활동을 하면서, 인권침해의 현장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인권활동이란 인간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그걸 퍼뜨리는 게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었다. 더구나 비인간적 사회에서 인간의 소리를 찾고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개인의 내면으로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내 마음의 소리, 인간으로서의 내 목소리, 이웃의 목소리는 옆을 봐야, 세상을 만나야 들리는 소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인권활동이고 인권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알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의 노동과 서로의 감정에 기대고 빚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인권의 권리목록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정치공동체이든 생활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의 삶을 전제로 권리와 의무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옆을 보는 순간, 내가 처한 위치를 자각하는 순간에 '인권'의 소리는 시작된다. 같은 인간인데 왜 옆에 있는 누군가는 폭력을 당해야 하지, 왜 모욕적인 순간에 처해야 하지, 왜 난 차별받는 거지, 뭔가 불합리한 거 같은데 등등의 것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나 인권운동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어렵게 표현하면 누구나 유엔에서 말한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다.

1998년 유엔 총회에서 정한 인권옹호자 선언에서 말하는 인권옹호자란 바로 나의 인권이나 타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하는 활동하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즉 모두에게 인권옹호자가 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인권옹호자선언 1조)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탄압하는 사회나 국가가 많다. 그래서 인권옹호자 선언을 만든 후인 2000년에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두었다가 2008년과 2011년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두었다.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고문당하거나 구속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에 있지만, 나라마다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방식이나 양상은 다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인권옹호선언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하는 말이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짓밟힌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실천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행동에 옮겼다. 하루 종일 방송을 보며 홀로 눈물 흘리다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든 사람, 노란리본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생겨났다. 때로는 1인 시위를 하는 일이고 때로는 집회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인권옹호활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배에 탄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무슨 이유로 배에 탔건 간에 그/녀도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 같은 사람으로서 생명이 무참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행동한 것이다. 이렇듯 인권은 존엄에 대한 상호인정, 책임감 등 유대관계의 차원을 포함하는 말이다.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지가 나를 큰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민지와 예진이는 친했어요. 민지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애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이가 살았는데 왜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일을 하느냐고. 이유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못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빠 진상규명할 거지에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민지아빠하고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1년 동안 유가족하고 같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 장예진 님의 아버지)

"배에서 나온 CCTV에서 식당으로 가는 우리 수인이의 밝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왜 우리가 CCTV 로 그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합니까? 왜 정부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줬을까요? 세월호 구조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정부가 구조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진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끝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곽수인 님의 아버지)

"나라에서는 치유네 뭐네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참담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국민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김민지 님의 아버지)

"인권이 무너진 이 정부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인권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304명을 몰살시키고 물에 수장시킨 이 정부에 과연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량한 시민 앞에 인권은 무너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456일째인데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 말씀 하려 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인양 없이는 이 나라에는 어떤 인권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제 아이가 물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아이 아빠로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지금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

다. 하루빨리 (세월호) 인양해서 진실을 찾아야지요. 국민 여러분이 여태 도와주셨잖아요. 인양하는 것도 함께 하셔야지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미수습자 허다윤 님의 아버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한다. 때로는 유가족들이, 때로는 미수습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각자 마음의 소리를 찾아 실천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그렇게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과 함께 해왔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으로도 우리의 발을 묶을 수는 없다

▲7월 15일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 활동가의 구속탄압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래서 정부, 경찰 등의 권력기관은 그 소리를 차단하고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는 짓을 많이 한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차벽을 세우고 연행을 하고 기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김혜진 416연대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에서 인권옹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바로 집회시위의 권리이고 결사의 권리이다. 그런데 그 권리(집회시위)를 이유로 탄압한다니,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 셈이다. '당신은 인권(옹호)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12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 -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약칭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중, 유엔총회 결의 53/144 (1998년 12월 9일)

그런데 얼핏 생각해도 경찰의 대응은 과하다. 백번 양보해서 경찰의 주장대로 그들이 불법시위를 했다면 그건 현장 사진으로 충분하다. 집회시위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등은 압수수색으로 찾아낼 증거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경찰들이 집회시위 장소 곳곳마다 국민 세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채증장비를 갖고 불법 채증을 마구 벌이고 있으니 경찰 주장대로 불법시위를 했다면 증거는 이미 넘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과하다.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기에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인데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도주 우려의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시민들, 활동가 등 모두에게 하는 경고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협박이다. 이른바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인권의식이 생기고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이들을 협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인권의식을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국가권력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협박이 쉽게 통할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당일 단 2시간 만에 규탄성명을 함께 낸 모임만 전국 600개가 넘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304명이 속절없이 죽는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희망의 행동을 시작했기에 어떤 절망스럽고 끔찍한 정부의 탄압에 맞닥뜨릴지라도 쉽게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도 안다. 그것으로 우리의 연결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정의를 확신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듯이 인간 존엄성을 확신하지 않고 인권을 실현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믿기에 우리는 '인권'을 향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말로 국가권력의 탄압에 맞선 우리의 의지를 갈음한다.

"어디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국민대책회의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족을 탄압하는 거죠. 세월호 시행령이 발동됐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붙을까봐 그걸 막으려는 거지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박성호 님의 어머니)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이제부터 탄압을 시작하려나보다 싶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이 잠잠한 거 같아서…. 주변이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김다영 님의 어머니)

“우리가 싸울 건덕지를 만들어주는구나 했어요.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지, 더 자극을 하면 우리가 뭉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가 감추려고 하는 게 더 많다는 생각도 들고. 의혹이 커지는 거죠. 국민들과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니까 더 큰 의혹이 들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임세희 님의 아버지)

덧붙임 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속 아홉 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죠?

관련사이트
- 416연대